

“생화학자 꿈... 희귀병 환자 고통 덜어주고 싶어”



(8) 전남과학고 2학년 김지성 양

분광학·양자화학 등 물리화학 공부
순천대 영재원 출신 과학 경시대회 수상
미국 현지 대학서 무기화학 공부도

“저는 생화학자가 되고 싶어요.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나노기술을 이용한 치료법을 개발해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습니다. 희귀병이 걸리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분광학이나 양자화학 등과 같은 물리화학도 공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변화와 움직임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지금은 관련 서적이거나 논문, 뉴스 같은 것을 친구들과 찾아보고 함께 연구하고 있어요.”

전남과학고 2학년 김지성(17)양이 최근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분광학은 원자, 분자 또는 물질에 의한 빛의 흡수와 복사 스펙트럼을 측정해 물질의 성질을 분석·연구하는 분야다.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배경을 알고 싶어하는 김양에게 어울리는 학문

이기도 하다.

“전 도전을 즐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헨리 포드의 명언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게 과연 될까?’라고 반신반의했지만, 도전해보면 어느새 성숙해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제가 인재가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도 도전을 즐기는 자세에 있는 것 같아요.”

순천대 영재원에서 3년을 보낸 김양은 각종 수학·과학 경시대회에 참여해 동상을 받고, 노벨 에세이 대회, 노벨캠프에서 시간을 보내며 도전해왔다. 지난해에는 10박 13일 간 미국에 건너가 CCNY대학의 글렌 코와치(Glen Kowach) 교수에게 무기화학을 배우기도 했다. 서툰 영어 실력지만 열심히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적으며 실력

을 키웠다.

“미국에서 공부한 뒤 앞으로 과학이 모두에게 친근해질 수 있도록 과학축전이나 각종 행사, 멘토링 등의 도우미로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후배들이나 과학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 안내해주는 역할도 하고 싶어요.”

김양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에 열중할 수 있게 해준 전남도와 도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위치에 가기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전남도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을 더 자주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저를 지역인재로 선발해주신 만큼 진정한 인재가 되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인슈타인이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디자인진흥원, 코로나 의료진에 주먹밥 나눔 릴레이



광주시와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위성호)이 코로나19 사태로 지친 의료진들과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감사와 응원이 메시지를 전하는 ‘광주주먹밥 나눔 릴레이 행사’를 진행해 눈길을 끈다. <사진>

이번 행사는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광주주먹밥 브랜드 지원사업의 연계로,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광주주먹밥 판매업소 영업자들이 직접 만든 주먹밥을 전달하는 프로젝트다.

첫 나눔 행사는 지난 22일 빛고을전남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에서 버무리떡볶이 노대점 직원들의 참여로 열렸으며 23일에는 동구보건소(пам스국), 삼중종합사회복지관(푸드타임), 서남지역아동센터(버무리떡볶이)에서, 24일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선별진료소(박콘서트)에서 진행됐다. 마지막 나눔은 오는 30일 삼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다. /김미은 기자 mekim@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기후환경센터와 그린뉴딜 연구 협약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원장 안기석)은 광주형 그린뉴딜 연구개발 공동 추진을 위해 (재)국제기후환경센터(대표 윤원태)와 최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주형 그린뉴딜 연구개발사업의 공동추진을 통한 연구성과 연계와 환류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또 다부처 공동기획연구사업 공동기획 및 사업화, 지역 기후환경 및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공동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의 기획지원을 통해 지난 7월 선정된 과기정통부의 ‘2020년 다부처공동기획연구사업’을 추진한다. 양 기관은 공동기획 대상과제의 최종 사업선정을 위해 인·물적자원 지원, 연구 및 공동사업 참여 등을 적극적으로 상호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김선우 강진경찰서장, 첫 시집 ‘천연덕스런 아버지의 거짓말’ 출간



현직 경찰서장이 가족과 경찰 동료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한 시집을 출간했다.

주인공은 김선우 강진경찰서장. 지난 2007년 계간지 ‘뿌리’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김 서장은 그동안 부모에 대한 연모(戀慕)와 가족, 경찰 동료에 대한 사랑을 주제로 창작 활동을 해오다 이를 엮어 첫 시집

‘천연덕스런 아버지의 거짓말’(도서출판 예미)을 출간했다. 지난 2011년 에세이집 ‘행복과출소’를 출간이후 두번째다.

김 서장은 32년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서주민과 경찰 간 딱딱한 관계를 넘어 어렵고 힘들어하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다가가는 감성경찰을 꿈꿔왔다.

평소 인물에 대한 서정적 표현을 즐기는 편으로 특정 인물과 나는 깊은 교감을 시로 표현하고 담아냈다.

이번 시집의 대표작인 ‘천연덕스런 아버

지의 거짓말’에서도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옛 추억을 시로 풀어냈다.

“엄마 품, ‘경찰이란’, ‘다산 별곡’, ‘강진 예찬’, ‘반갑다 우두봉아’ 등 인물과 지역, 일상을 주제로 한 시를 포함해 총 74편을 수록했다.

화소 출신인 김 서장은 경찰청 혁신기획단 등을 거쳐 경기남부경찰청 복지계장, 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과장을 역임한 뒤 지난해 7월 강진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인사

- ◆IBK기업은행
 - ◇부행장 진보
 - ▲IT그룹장 총정·호남그룹 윤완식
 - ◇WM센터장 진보
 - ▲광주WM센터 최나영
 - ◇지점장 진보
 - ▲광양 송광성 ▲광주수원 최유선 ▲광주점단 박승래 ▲군산 나운동 이금재 ▲대불공단 임귀옥 ▲목포 김진형 ▲새만금 도승일 ▲서광주 윤영삼 ▲순천 양부승 ▲정읍 문경배
 - ◇기업성장지점장 진보
 - ▲광산 김영욱 ▲전주 변현영

TV프로그램 2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앙코르 20주년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빴었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0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30 930 MBC 뉴스 55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좋은아침
10	00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50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00 국외인사청문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00 국외인사청문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11		00 그놈이 그놈이다(재)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동해수호대 50 뽀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역민방 특별대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듣는다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2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미니다큐 55 KBS광주 열린마당(재)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착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세상의 모든 다큐(재) 50 변신자동차 도박 -전하장사 퀴트란	00 포비덴트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정전협정 67주년 특집 D선상의 아리아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닥터 365 05 시사터치! 따따부따(재)
8	30 기막힌 유산	30 퀴즈 위의 아이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그놈이 그놈이다	30 안싸우면 다행이야	
10	00 가요무대 50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40 개는 훌륭하다		00 텔레비전에 그게 나왔으면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5 백파더 확장판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10 다큐 인사이드(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안디무지크(재)	25 나 혼자 산다 스페셜 여자들의 은밀한 피티 스페셜 35 콘텐츠 박물관 스페셜 건강한 집 세계의 예코하우스	40 나이트 라인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25 세상의 모든 법칙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7:15 출동! 슈퍼핑크	12:30 EBS 마스터	19:00 형사 가제트
07:30 뽀뽀뽀 뽀로로	13:00 EBS 다큐프라임	19:30 최고다! 호기심딱지
07:45 로보가 폴리	13:50 다큐 로그인	19:45 자이언트 팽TV
08:00 땡땡땡 유치원	14:40 레이디버그	20:00 돈이 되는 토크쇼 - 머니톡
08:30 냉장고 나라, 코코몽	15:40 해오와 해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50 뽀로로와 노래해요	<이것이 진짜 탐험 -적도의 불꽃,인도네시아>
09:00 픽시	15:55 핫도그만 만들어볼까요(재)	21:30 한국기행 <기다렸다, 여름 맛 1부 우리는 지금 계곡으로 간다>
09:30 페파 피그	16:10 뽀뽀뽀 뽀로로(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40 건축탐구 - 집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22:40 야생의 지구
10:30 한국기행(재)	16:40 땡땡땡 유치원(재)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45 EBS 명강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아동명명 귀여워2	
12:00 EBS 정오뉴스	17:30 로빈 후드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45 히어로 씨클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27일(음6월 7일 辛未) ☎ 010-9790-8237

<p>36년생 김급히 의논해야 할 일이 생긴다. 48년생 서두르지 말고 조심히 추이를 관망하자. 60년생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는 극세이다. 72년생 지금의 추세라면 성공을 확신해도 된다. 84년생 핵심 정곡을 찌러서 처리할 수 있는 해안이 절실하다. 96년생 함께하는 이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77</p>	<p>42년생 바람이 좋다면 절반의 성공은 보장 받은 셈이다. 54년생 숨은 근심이 보인다. 66년생 반추해 본다면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78년생 조절과 통제에 미숙하다면 화를 부르고야 말 것이니 냉정하게 일하라. 90년생 흥과 복이 반반이니 의연히 대처하라. 02년생 능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만 이룰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8, 90</p>
<p>37년생 정해 요소를 제거하라. 49년생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유지 하고만 있으면 성과를 거두리라. 61년생 행운의 빛이 비추고 있다. 73년생 재수불공을 울린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분명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85년생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97년생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취약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5, 92</p>	<p>31년생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43년생 지금은 답답지 않을 지라도 수용하는 것이 백 번 낫다. 55년생 서로 진행 방향이 상반되니 인연이 박하다. 67년생 마무리 단계에서 정제할 수이다. 79년생 복덕의 원인이 있으면 고보는 따르게 마련이다. 91년생 상대의 숨은 의중은 따로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43, 69</p>
<p>38년생 단정 짓기에는 애매한 요소들이 있다. 50년생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62년생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74년생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86년생 바야흐로 길성을 향해 진입하는 길목에 놓여 있다. 98년생 제대로 보여 주버려라. 행운의 숫자 : 59, 62</p>	<p>32년생 가제는 게 편임을 알고 방심해서는 아니 된다. 44년생 선별된 언어 구사를 하는 것이 맞다. 56년생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중대사를 망각할 수 있다. 68년생 절대적이라고 치부한다면 오산이다. 80년생 흥한 것이 오히려 복으로 변할 소지가 많으니 낙심할 필요는 없다. 92년생 끝부분에 중요한 핵심적 사실이 깃들어 있다. 행운의 숫자 : 20, 50</p>
<p>39년생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낫다. 51년생 제약이 따를 수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63년생 다른 곳까지 옮겨가면서 더 확대되는 기세이다. 75년생 공통점을 찾아낸다면 국면 전환에 훨씬 수월할 것이다. 87년생 순식간에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리라. 99년생 유사하거나 중복을 피하는 것이 무방하다. 행운의 숫자 : 11, 96</p>	<p>33년생 엉뚱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45년생 처음에 임할 때에는 다소 생소할 수도 있었지만 머지않아 적응 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57년생 금상첨화의 기회이리라. 69년생 속 타는 일이 생겼지만 일시적이다. 81년생 의외해 보는 것도 괜찮다. 93년생 오래 가지 못할 수다. 행운의 숫자 : 40, 56</p>
<p>40년생 기회가 왔을 때 잡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된다. 52년생 침착하게 일하라. 64년생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는 법이다. 76년생 단순해 보일지라도 실제 내막은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88년생 부당스러워 왔던 점을 달게 될 것이다. 00년생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23, 64</p>	<p>34년생 목표에 도전해도 되는 무난한 날이로다. 46년생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양태이다. 58년생 합리적인 조절이 좋은 선택으로 이어진다. 70년생 부작용으로 나타날 공산이 크다. 82년생 선택을 잘 해내야 적용된다. 94년생 복잡하기는 하지만 노력하면 양호해진다. 행운의 숫자 : 06, 73</p>
<p>41년생 분명히 해둬야 뒤따라 없는 법이다. 53년생 결정을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들이 필요하다. 65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상대의 진정한 의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89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감정을 부르리라. 01년생 정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24, 93</p>	<p>35년생 다시 본원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맞이한다. 47년생 변화에 적응해야만 한다. 59년생 투명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 법이다. 71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느니라. 83년생 절진적으로 행하라. 95년생 기대하여 왔던 이가 실망을 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42, 82</p>